

금타 광주공장 화재 사흘만 완진...원인규명은 늦어질 듯

2공장 전체면적 중 50~65% 소실
소방당국, 건물 내부 철거작업 중
화재 연기·분진가루 제거 방수도
붕괴위험 안전 확보 후 감식 예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초기 고무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방당국이 조기 투입한 특수장비가 주불을 신속히 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는 건물 내부 붕괴 우려가 해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압이 완료됐다.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 발생 이후 76시간 39분(사흘 4시간 39분) 만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주불을 잡았으나, 각종 가연성 물질이 뭉친 200여개의 불덩어리 탓에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국가소방동원령까지 격상됐던 진화가 종료되면서 후속 대책 지휘권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이양됐다.

소방은 재발과 저지, 후속 사고 예방 등 현장

역할을 안전 관리로 전환했다.

현재 화재 현장에서는 불에 탄 생고무 등 내부에 잔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굴삭기 등 중장비가 동원돼 콘크리트 벽체를 잘라내며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기와 분진가루 날림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방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화재 조사를 위해 불이 시작된 곳 주변은 해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건물이 해체될 때까지 내부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불은 광주공장 2공장 내 생고무를 예열하는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원인 불명의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공장은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타이어 주요 구성품을 가공하는 반제품, 반제품을 타이어의 형태로 만드는 성형 등 핵심 공정을 담당한다.

화재로 인해 전체 면적 중 50~65%가 화재로 소실됐고, 당시 생고무 20t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아직 추가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광주공장 정련 공정 건물 내부가 붕괴 조짐을 보여 연기됐다.

당국은 건물이 해체된 이후 붕괴 위험성이 없는지 안전성을 확인한 뒤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인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사흘만에 완전진화를 선언하고 건물 철거 등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 안전·화재수사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렸고,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

물 내부 방화문 작동 여부 등 화재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날 감식 요원을 화재 현장으로 보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화재 현장은 건물 붕괴

위험 등 구조적으로 취약해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붕괴 위험 요소가 있는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면 잔존물 분석 등을 통해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법원 “입찰 담합 콘크리트 업체들, 한전에 배상을”

2곳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억 1100여 만원 공동 배상”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이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짜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업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던지기로 했다.

한전은 이러한 담합 탓에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콘크리트관을 구매했다며 그 추산 차액인 5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 손해액은 한전의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1억 3,87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업체들의 책임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추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범위를 감정액의 80%로 제한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이번 담합 행위로 각각 1억 5,700만원과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환준 기자

“피해보상 로드맵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달라”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입장문

광주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피해보상 로드맵을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보상의 범위, 절차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전반적인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혼

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상당수가 집을 나와 대피 시설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며 “집, 자동차 등 화재 현장에서 나온 연기와 낙하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시민이 겪는 불편과 제기하는 요구에 정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피

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 로드맵과 조속한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시민들이 있는 대피 시설에 운영 인력을 보내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에 두려웠을 인근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을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근로자 사망 사고...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노동청, 기아 광주 3공장 작업중지

최근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차량 운반 기계에 끼여 숨진 40대 노동자 A씨의 사망 원인이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시신

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두개골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조립 공정을 마친 1톤 화물차의 상태를 검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로 추정됨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광주경찰청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지난 19일 오전 7시를 기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수민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